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의사소통 능력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김희숙¹ · 박경란² · 김판희³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¹, 구미시정신보건센터 팀장 · 정신보건간호사², 구미시정신보건센터 · 정신보건간호사³

Effects of a Social Skill Training Program on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Communication Ability, and Peer Relations in Children Using a Community Child Center

Kim, Hee Sook¹ · Park, Gyeong Ran² · Kim, Pan Hee³

¹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²Team Leader, Gumi City Mental Health Center,

³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 Gumi City Mental Health Center

Purpose: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a social skill training program on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communication ability, and peer relations in children using a community child center were examined. **Methods:** A quasi-experimental design was used.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10 to December 15, 2009. To test the effects of the social skill training program, the children using a community child center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n experimental group (21) and a control group (21). The outcomes were measured by the Korean ADHD Rating Scales (K-ARS), communication ability scales, and peer relations scales. **Result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scores and peer relations scores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social skill training program applied cognitive behavior therapy is a useful nursing intervention for decreasing the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and improving the peer relations of these children using a community child center.

Key Words: Social skill training,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Communication ability, Peer relations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지역사회 내에 활발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보호, 교육,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가정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9년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78.8%가 초등학생이었다. 대

상자의 경제상황은 차상위, 수급권 및 기타 빈곤층이 78.2%였고, 가정형태는 한 부모 가정이거나 조손 가정 아동이 40.9%였으며, 양부모 가정인 경우도 52.3%가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eadquarters for Community Child Center, 2009).

일반적으로 아동들은 이전에 형성된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교사 및 또래들과의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경험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한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경우 경제적 문

주요어: 사회기술훈련,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의사소통 능력, 또래관계

Address reprint requests to: Kim, Hee Sook,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01, Dongin-dong, Jung-gu, Daegu 700-422, Korea. Tel: 82-55-420-4927, Fax: 82-55-422-4926, E-mail: hskim8879@knu.ac.kr

투고일 2011년 7월 11일 / 수정일 1차: 2011년 11월 18일, 2차: 2011년 12월 11일 / 게재확정일 2011년 12월 12일

제와 심리·정서적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가 많아 부모와 적절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Kim, Chae, & Park, 2010). 이러한 부적절한 상호작용은 아동이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고 실행할 기회를 감소시켜 자신과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개념을 형성하게 한다.

특히 아동에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경향이 있는 경우 부주의한 행동이나 낮은 학업성취 등으로 인해 교사나 부모로부터 잦은 지적을 받게 되고,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 역시 부정적 양상을 나타내어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그리고 충동성으로 인해 만족을 지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불쑥 말을 하거나 놀이의 규칙을 무시하여 끊임없이 다른 아동을 방해함으로써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Coleman & Lindsay, 1992; Landau & Moor, 1991). 이러한 요소들은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를 규칙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이 이들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어렵게 한다. 실제로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들이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동의 문제는 심리정서적인 문제가 가장 많았고, 그 외 또래관계, 교육, 학습문제, 아동과 부모관계, 비행문제 등이었다(Korea Council of Children's Organizations, 2005).

특히 아동의 또래관계는 정서적·심리적 발달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또래 속에서 인정받고 소속되는 체험은 또래들과의 어울림,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 사회적 기술 습득 등 아동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Gim, 2005). 또한, 초등학교시기의 따돌림과 같은 사회적 관계에서의 부적응은 사회적, 학업적, 행동적 영역에서 낮은 수행을 강력하게 예측해주는 요인이 되며, 이 문제는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Frankel, Myatt, Cantwell, & Feinberg, 1997).

따라서 이들 아동이 효율적인 또래관계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대인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술 중 하나가 의사소통기술이다. 인간관계에서의 의사소통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필수적인 사회화의 과정으로 개인의 인간성을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성립, 발전, 보존시키는 수단이다(Jeong, 1998). Gazda와 Rogers는 대인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자신의 행위와 반응에 대한 지지와 확신을 서로 주고받으며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게 하고 자신의 존재의 귀중함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과 상대방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Kang, 1996에 인용됨). 그러므로 건전한 대인관계에 취약

한 아동들을 위한 의사소통기술 훈련은 또래들과의 갈등 상황에서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므로 또래관계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정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학교에서 학급 단위로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정하였거나(Lee, 2008; Yu, 2008),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자존감 등의 향상을 본 연구들이(Han, Ahn, & Lee, 2001) 대부분이었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Kim, 2007)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향상 훈련 중심의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서 활용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의사소통 능력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3. 연구가설

가설 1.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점수가 더 많이 낮아질 것이다.

가설 2.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의사소통 능력 점수가 더 많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3.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또래관계 점수가 더 많이 높아질 것이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주의결핍 과잉행동, 의사소통 능력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을 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synchronized design)의 유사실험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들은 G시에서 지원받아 운영하는 4개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재학생으로 위치한 지역은 다르지만 경제적 수준 등 가정 형편이 유사한 취약 계층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대상자 수는 G*Power 프로그램으로 유의수준 $\alpha = .05$, 효과 크기 .80, power $1 - \beta = .80$ 을 기준으로 단측 검정으로 독립 t-test에 필요한 표본수인 21명이었다. 이를 근거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10~18명인 점을 감안하여 4개의 지역아동센터를 임의로 선정하였고, 난수표를 이용하여 2개 지역아동센터를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할당한 후 서면동의를 받은 아동이 실험군 25명, 대조군 25명이었다. 하지만 실험군에서는 프로그램에 1회 이상 결석한 4명이 탈락하였고 대조군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그만 두거나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4명이 탈락함으로써 최종 분석 대상자는 실험군 21명, 대조군 21명으로 총 42명이었다.

3. 연구도구

1) 주의력결핍 과잉행동(Korean ADHD Rating Scales, K-ARS)

본 연구에서 사용한 K-ARS 척도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정도를 평가하는 도구로 Dupaul, Power, Anastopoulos와 Robert (1998)가 DSM-IV의 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진단준거를 토대로 부모 및 교사용으로 개발한 ADHD Rating Scale (ARS)을 So, Noh,

Kim, Ko와 Koh (2002)가 번안한 것으로 도구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점 척도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 3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So 등(2002)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2 \sim .89$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7이었다.

2)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on ability)

본 연구에 사용한 의사소통 능력 척도는 Bienvenu (1971)가 제작하고 Kang (1996)이 번안한 것을 Lee (2004)가 3점 척도에서 5점 척도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도구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도구가 본 연구대상자에게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정신간호학 교수 1인과 정신보건간호사인 본 연구자들이 검토 후 사용하였다.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표현의 명확성, 경청, 자기노출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고, 부정문일 경우에는 역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좋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 (2004)의 연구에서 각 하위 요인별로 Cronbach's $\alpha = .70 \sim .84$ 였고, 본 연구에서는 .81이었다.

3) 또래관계(peer relations)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동 상호간의 또래관계 척도는 연구대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태도 및 행동 특성을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는 도구로 Gim (2005)의 척도를 사용하였고, 도구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이 도구는 총 40문항의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고, 부정문일 경우 역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우호적인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Gim (200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8$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1로 나타났다.

4. 실험처치(사회기술 훈련 프로그램)

사회기술훈련은 아동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행동을 개선하도록 바람직한 기술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으로 행동적 중재방법에 속한다(Lee, 2008). Gresham과 Elliott (1990)은 사회적 기술 기능의 결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지식

의 부족, 연습과 피드백의 부족, 단서의 부족, 강화의 부족, 그리고 사회적 행동 발현을 방해하는 문제 행동으로 보였다.

본 연구의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은 Pfiffner와 Mcburnett (1997)의 프로그램을 우리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Han 등 (2001)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친구를 집으로 초대하기 등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역할극에 초점을 맞추어 정신간호학 교수의 자문을 받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프로그램의 회기는 Seo와 Park (2010)의 연구결과 학령기 ADHD 아동의 사회기술훈련 중재에서 회기 당 시간은 60~90분, 총 중재 시간은 480분 미만인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를 토대로 주 1회, 매 회기 당 60분씩 총 6주 동안 실시하였다. 1회기와 6회기는 설문지 조사를 위해 90분으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은 매 회기마다 한 가지씩 또래관계향상을 위한 사회적 기술을 적은 기술카드를 제시한 후 주제와 관련된 집단놀이(게임)를 하면서 역할놀이를 통해 실제 기술을 적용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1회기는 사전 조사, 프로그램 소개 및 나의 장점 찾아서 발표하기, 2회기는 좋은 놀이 친구 되기 기술과 친구 장점 찾아서 칭찬하기, 3회

기는 친구와 이야기하는 기술로 경청하기와 공감하기, 4회기는 자기주장 훈련으로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 익히기, 5회기에는 친구들로부터의 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해 놀이에 참여하는 방법, 화났을 때 마음속으로 5초 세기와 빈의자기법 등 문제해결 기술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으며, 6회기는 그동안 배운 사회적 기술을 역할놀이를 통해 모두 적용하여 봄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은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경험이 많은 2명의 정신보건간호사가 주 진행자와 보조 진행자로 진행하였다(Table 1).

5.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09년 11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주 1회, 매 회기 당 60분씩 총 6주 동안 실시하였다. 본 프로그램 운영은 지역아동센터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승낙을 받았다. 연구 전에 대상 아동들의 보호자에게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전화를 걸어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참여

Table 1. Social Skill Training Program: Theme and Specific Contents

Session	Subjects	Contents	Time (minute)
1st	Orien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Orientation of program Making group rules & agreements Pre-test Self-introduction: Recognize and praise my own merit 	90
2nd	Becoming a good friend at pl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Warming up game Introduction to skill of the week: Becoming a good friend at play Role play: Find and praise for friend's merit 	60
3rd	Having a conversation with frien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Warming up game: Telephone game Explaining the necessity of conversation skill Introduction to skill of the week: Skills of having a conversation with friends Role play: TV talk show 	60
4th	Doing a assertively & I-mess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Warming up game Introduction to skill of the week: Methods to express my thoughts Assertive behavior? Role play: I-message 	60
5th	Doing problem solving skil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Warming up game: STOP! 5 second Introduction to skill of the week: When come into my problem Role play: Problem solving skill 	60
6th	Reviewing all skil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Warming up game Role play: All skills to join the peer at play Share impressions Posttest 	90

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주고 비밀보장을 약속한 후 구두동의의 받은 후에 프로그램의 내용과 목적이 포함된 자료를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하여 서면동의를 받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아동에게도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목적과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하고,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서면 동의를 받았다. 실험군은 1회기에 사전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6회기 끝 순서로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질문지는 아동들이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 지역아동센터에서 해당 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게 프로그램의 취지와 설문지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또래관계와 의사소통 질문지는 연구대상자인 아동이 직접 기입한 것을 그 자리에서 연구자가 회수하였다. 실험처치를 위해서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회기별로 동일한 처치자가 실시하였고, 대조군의 경우 실험군과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실험군에 대한 중재가 끝난 이후 윤리적 고려를 위해 희망하는 대조군 21명에게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 중 나의 장점 찾기와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제공하였다.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집단별 정규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왜도값을 살펴본 결과 절대값이 1.0보다 작아 정규분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lmogorov-Smirnov 정규성 검정에서 유의수준 .05보다 높았고, Q-Q도표에서 데이터들이 직선에 가까워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실험 전 동질성 검정은 χ^2 -test와 Fisher's exact test로, 종속변수에 대한 실험 전 동질성 검정은 t-test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가설 검정을 위한 중재 전후 차이에 대한 집단 간의 비교는 각 집단의 사전-사후 차이값에 대하여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검정

본 연구대상자의 학년은 5학년이 실험군 62.0%, 대조군

38.1%로 가장 많았고, 성별에서는 여자가 실험군 61.9%, 대조군 57.1%로 남자보다 더 많았다. 동거가족은 실험군에서는 부모가 57.1%, 대조군에서는 편부, 편모, 기타가 71.4%로 더 많았으며, 친구 수는 3명 이상이 실험군 85.7%, 대조군 95.2%로 더 많았다. 아버지 종교는 실험군에서는 있다가 57.1%, 대조군에서는 없다가 76.2%로 더 많았고, 어머니 종교는 없다가 실험군 52.4%, 대조군 57.1%로 있는 경우보다 더 많았다. 아버지 근무시간은 실험군은 10시간 이상이 57.1%, 대조군은 10시간 미만이 76.2%였고, 어머니 근무시간은 실험군, 대조군 모두 10시간 미만이 각각 81.0%, 95.2%였다. 연구대상자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의심군은 실험군 28.6%, 대조군 23.8%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이 없어 두 집단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2. 종속변수에 대한 사전검사 점수의 동질성 검정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은 실험군 평균 11.7점, 대조군 평균 9.9점으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의사소통 능력의 평균도 실험군 129.2점, 대조군 126.2점으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래관계에서는 실험군 평균 125.1점, 대조군 평균 131.2점으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집단의 주요 종속변수는 동일한 조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Table 3).

3. 가설검정

가설 1.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점수가 더 많이 낮아질 것이다.”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은 사전평균 11.7점에서 사후 평균 8.9점으로 감소된 반면, 대조군은 사전평균 9.9점에서 사후 평균 11.1점으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으며, 두 집단의 사전-사후 차이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t=-2.19, p=.036$) 가설1은 지지되었다(Table 4).

가설 2.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의사소통 능력 점수가 더 많이 높아질 것이다.”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의

Table 2.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42)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21)	Cont. (n=21)	Total	χ^2 or Fisher's	<i>P</i>
		n (%)	n (%)	n (%)		
A grade	4th	4 (19.0)	7 (33.3)	11 (26.2)	2.41	.300
	5th	13 (62.0)	8 (38.1)	21 (50.0)		
	6th	4 (19.0)	6 (28.6)	10 (23.8)		
Gender	Male	8 (38.1)	9 (42.9)	17 (40.5)	0.10	.753
	Female	13 (61.9)	12 (57.1)	25 (59.5)		
Living together a family	Parents	12 (57.1)	6 (28.6)	18 (42.9)	3.50	.061
	Single-parent & the others	9 (42.9)	15 (71.4)	24 (57.1)		
Friend a numeral	< 3	3 (14.3)	1 (4.8)	4 (9.5)	1.11	.606 [†]
	≥ 3	18 (85.7)	20 (95.2)	38 (90.5)		
Father a religion	Yes	12 (57.1)	5 (23.8)	17 (40.5)	4.84	.058 [†]
	None	9 (42.9)	16 (76.2)	25 (59.5)		
Mother a religion	Yes	10 (47.6)	9 (42.9)	19 (45.2)	0.10	.824
	None	11 (52.4)	12 (57.1)	23 (54.8)		
Father job business hour	< 10	9 (42.9)	16 (76.2)	25 (59.5)	4.84	.058 [†]
	≥ 10	12 (57.1)	5 (23.8)	17 (40.5)		
Mother job business hour	< 10	17 (81.0)	20 (95.2)	37 (88.1)	2.04	.343 [†]
	≥ 10	4 (19.0)	1 (4.8)	5 (11.9)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Normal	15 (71.4)	16 (76.2)	31 (73.8)	0.12	.726
	Borderline	6 (28.6)	5 (23.8)	11 (26.2)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Fisher's exact test.

Table 3. Homogeneity Test for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in Pretest

(N=42)

Variables	Exp. (n=21)	Cont. (n=21)	<i>t</i>	<i>P</i>
	M±SD	M±S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11.7±11.05	9.9±13.06	0.49	.631
Communication ability	129.2±12.19	126.2±13.82	0.75	.460
Peer relations	125.1±14.64	131.2±15.78	-1.31	.198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사소통은 사전평균 129.2점에서 사후 평균 130.1점으로 높아진 반면, 대조군은 사전평균 126.2점에서 사후 평균 122.0점으로 낮아졌으나, 각 집단의 사전-사후 차이값은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t=2.01$, $p=.052$) 가설 2는 기각되었다(Table 4).

가설 3.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또래관계 점수가 더 많이 높아질 것이다.”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또래관계는 사전평균 125.1점에서 사후 평균 139.0점으로 높아진 반면, 대조군은 사전평균 131.2점에서 사후 평균

122.1점으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었으며, 두 집단의 사전-사후 차이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t=6.36$, $p<.001$) 가설 3은 지지되었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기 아동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의사소통 능력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그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4. Comparisons of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Communication Ability, and Peer Relation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42)

Variables	Groups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
		M±SD	M±SD	M±S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Exp. (n=21)	11.7±11.05	8.9±9.45	-2.8±7.67	-2.19	.036
	Cont. (n=21)	9.9±13.06	11.1±13.22	1.3±3.80		
Communication ability	Exp. (n=21)	129.2±12.19	130.1±11.64	0.9±7.52	2.01	.052
	Cont. (n=21)	126.2±13.82	122.0±14.06	-4.3±9.03		
Peer relations	Exp. (n=21)	125.1±14.64	139.0±15.27	13.9±14.27	6.36	<.001
	Cont. (n=21)	131.2±15.78	122.1±17.02	-9.2±8.59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이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중재 후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점수가 유의하게 더 많이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Guevremont (1990)가 사회적 강화가 과잉행동을 감소시키고 주의력을 증가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한 것과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을 ADHD 성향의 3~5학년 학생에게 실시한 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고 한 Oh (2007)의 연구 결과 Pfiffner와 Mcburnett (1997)의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8회기로 실시한 Kim (2007)의 연구에서 주의집중 문제가 감소하였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Yun, Koo, Jeon, Hyun 및 Kim (2007)이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을 아동 단독집단으로 진행했을 때와 부모교육 병합집단으로 진행했을 때를 비교한 연구에서 아동 단독집단의 부주의나 충동적 행동이 중재 전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이는 본 프로그램 구성 시 ADHD 경향이 있는 아동의 집중시간을 고려하여 초기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게임을 이용해 주제에 접근하도록 하였고, 내용도 화가 날 때 마음속으로 “잠깐만” 하고 외치는 방법 등 실질적으로 과잉행동을 조절하는 방법을 훈련함으로써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의 감소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Seo와 Park (2010)이 학령기 ADHD 아동을 위한 비약물적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메타 분석한 결과 사회기술훈련이 주의집중문제에 효과적이었던 경우 최소한 8회기 이상 진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는 본 연구의 경우 6회기로 기간이 짧았지만 집단원들이 모두 한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로 배운 내용을 서로 간에 쉽게 적용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중재 후 의사

소통 능력 점수가 약간 상승한 반면,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점수가 약간 낮아졌으나 사전-사후 차이값은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 대인관계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켰다는 Yu (2008)의 연구결과와 ADHD 경향 아동들에게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을 1개월 동안 주 5일 20회기 진행한 Lim (2009)의 연구에서 자기주장 척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는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평소 거친 말투와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 의사소통하던 아동들이 6주라는 짧은 기간 안에 본 프로그램에 포함된 경청, 칭찬하기, 나 전달법, 자기주장하기 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초기에 자신의 의사를 나타내기 힘들어하던 집단원들이 회기가 진행되면서 적극성과 더불어 집단원들 간의 의견 차이에 대해서도 조금씩 조절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회기를 늘려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대조군의 경우 특별한 사건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소통 능력이 4.3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아동센터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의사소통기술이 부족하여 또래 사이에서 거칠고 짜증난 표현, 공격적인 장난 등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함으로써 마찰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중재 후 또래관계 점수가 상승한 반면,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오히려 점수가 낮아져 사전-사후 차이값은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사회기술훈련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아동의 또래관계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는 Ban (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학령기 아동이 또래로부

결론

본 연구는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의사소통 능력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의 유사실험연구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 사용된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에는 자기 장점 찾기,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 및 또래 갈등 예방을 위한 문제해결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 실시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점수와 또래관계 점수가 더 많이 낮아진 반면, 의사소통 능력 점수는 두 집단의 사전-사후 차이값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은 취약한 계층 아동들의 또래관계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간호중재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REFERENCES

- Ban, G. N. (2008). *The effects of social skills improvement program on the ego-resili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of Education, Seoul.
- Bienvenu, M. J. (1971). A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inventory. *The Journal of Communication*, 21, 381-388.
- Coleman, W. L., & Lindsay, R. L. (1992). Interpersonal disabilities: Social skills deficits in order children and adolescents. *Ped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39, 551-567.
- Dupaul, G. J., Power, T. J., Anastopoulos, A. D., & Robert, R. (1998). *ADHD rating scale-IV*. New York: Guilford Press.
- Frankel, F., Myatt, R., Cantwell, D. P., & Feinberg, D. (1997). Parent-assisted transfer of children's social skills training: Effects on children with and without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6, 1056-1064.
- Gim, T. H. (2005). The effect-growth program on the self-concept and peer-relationship of elementary school student.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4(1), 215-

터 거부감을 유발하는 이유는 또래들과의 놀이에서 기본적인 규칙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아이들의 놀이에 끼어들어 방해하거나, 수업시간에 방해하는 행동을 하며 학업 수행도가 떨어져 또래로부터 부정적인 평가와 따돌림을 받기 때문이다(Han et al., 2001). 따라서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이러한 상황을 미리 역할놀이를 통해 충분히 익힘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투는 일이 줄어들게 되었고, 서로 감정도 교류도 많아지고 함께 어울리는 시간도 많아졌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Kim (2007)의 연구에서는 8회기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을 4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실시한 후 또래의 사회적 수용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본 연구의 경우 프로그램 회기 자체가 길지는 않았지만 같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함께 생활하는 아동들로 프로그램 소감이나 프로그램 진행 동안 관찰한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집단원들 간에 관계가 더욱 친밀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경험이 또래관계를 잘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조군의 또래관계 정도가 의사소통 능력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사건 없이 9.2점 이하된 것은 의사소통 능력과 또래관계의 질은 높은 상관관계(Kim & Yoo, 2002)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중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확대되면서 기존에 만성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에 많은 역할을 해오던 정신보건간호사들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역아동센터 등 열악한 상황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및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보완하고, 회기를 적절히 조절한다면 취약계층 아동들의 정서적·심리적 발달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또래관계 향상을 위한 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학령기 아동의 경우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아동에 대한 관찰이나 평가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까지 포함하는 후속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사회기술훈련의 경우 배운 기술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활용하는가가 중요하므로 직후 효과뿐만 아니라 시간이 경과한 후 그 효과가 지속되는지에 대한 후속연구도 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제언한다.

236.

- Gresham, F. M., & Elliot, S. N. (1990). *Social skills rating system manual*. Circle Pines, MN: American Guidance Service.
- Guevremont, D. (1990). Social skills and peer relationship training. In R. A. Barkley (Ed.).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 handbook for diagnosis and treatment* (pp. 540-572). New York: Guilford Press.
- Han, E. S., Ahn, D. H., & Lee, Y. H. (2001). The social skill training in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Journal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12(1), 79-93.
- Headquarters for Community Child Center. (2009). *The survey of 2009 community child center* (Issue Brief No. 10-006). Seoul: Author.
- Jeong, Y. M.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with parents of vocational girls'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6(3), 31-45.
- Kang, K. J. (1996). *The effects of the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 Kim, H. S., Chae, Y. S., & Park, G. R. (2010). Effects of a self-growth program on self-esteem, inferiority, and peer-relationships in children using a community child center. *Journal of Korean Academy Child Nursing*, 16, 1226-1815.
- Kim, I. H. (2007). The effect of social skills training with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6, 420-428.
- Kim, J. K., & Yoo, A. J. (2002). Preadolescent's communication skills and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according to institutionalized or not, sex, age.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3, 121-135.
- Korea Council of Children's Organizations. (2005, December). *2005 Children's planning forum report-3*. Retrieved November 1, 2011, from <http://www.kocconet.or.kr>
- Landau, S., & Moor, L. (1991). Social skill deficits in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School Psychology Review*, 20, 235-251.
- Lee, S. J. (2008). *A case study on improvement of peer relationship of ADHD children through the social skills train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J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Jinju.
- Lee, Y. M. (2004). *Strengthening practices for peer group counseling's effect on peer counselors' human relations attitude and communication skil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Ulsan.
- Lim, Y. H. (2009). *Effects of social skill training program for children with tendency of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eagu.
- Oh, H. S. (2007). Development of social skill training program for children with ADHD disposition and study on its effect: Utilizing computer-assisted social skill training and mental rehearsal.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6(1), 21-37.
- Pfiffner, L., & Mcburnett, K. (1997). Social skills training with parent generalization: Treatment effects for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 disorde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 749-757.
- Seo, J. Y., & Park, W. J. (2010). The meta analysis of trends and the effects of non-pharmacological intervention for school aged ADHD 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9, 117-132.
- So, Y. K., Noh, J. S., Kim, Y. S., Ko, S. G., & Koh, Y. J. (2002).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Korean parent and teacher ADHD rating scale. *Journal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1, 283-289.
- Yu, H. J. (2008). *The effects of the peer relation improvement program for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self-concept and communication 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wangju.
- Yun, S. Y., Koo, Y. J., Jeon, J. A., Hyun, M. H., & Kim, H. C. (2007). The effects of parent training program combined cognitive behavioral social skill training on symptoms and social behaviors of children with ADHD.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iatry*, 12, 529-545.